

여름철 온열질환 주의...환자 10명 중 4명 농촌서 발생



기온이 높은 여름에는 논밭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자칫 일사병 등 온열 질환에 걸릴 수도 있는데 특히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이런 위험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낮에 밭일에 한창인 농민들. 햇볕을 피하려고 모자를 쓰고 수건으로 얼굴도 가렸지만 덥고 힘든 건 매한가지입니다.



<인터뷰: 오영이 / 경기도 수원시>

땀벌에서 일하다 보니까 덥기도 하고 온몸이 쭈시고 모기도 물고 막 힘들고 죽겠어요.



여름철 한낮에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건 더 고역입니다. 바깥 온도가 30도를 넘으면 비닐하우스 안은 차광막을 치고 환기장치를 돌려도 40도를 넘기 일쑤입니다.



<인터뷰: 고훈순 / 경기도 수원시>

나이가 드니까 특히 여름에 고온일 때는 아주 힘들어요,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그냥 쉬어요, 쉬었다가 해가 어느 정도 지면 그때 또 작업에 들어가고.

여름철 온열질환 주의

YTN

고 훈 순 경기도 수원시
나이가 드니까 특히 여름에 고온일 때는 아주 힘들어요.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그냥 쉬어요.



지난 5년 사이 폭염 특보 발령은 연평균 130회. 같은 기간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는 6천5백 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54명이나 됩니다. 온열 질환자의 43%는 농촌에서 발생했고 6월에서 7월 사이에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농촌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되면서 환자 발생이 느는 추세입니다.

여름철 온열질환 주의

여름철 온열 질환자 급증...고령화된 농촌 더 심해



<인터뷰: 김경란 /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원>

특히 햇빛을 많이 받은 채로 일하시면 일사병에 걸려서 굉장히 탈진상태에 이를 수도 있고 40도 이상 체온이 올라가고 땀이 안나고 그러면 열사병이라고 하는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고온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름철 온열질환 주의

YTN

김 영 란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원
특히 햇빛을 많이 받은 채로 일하면 일사병에 걸려서
탈진상태에 이를 수도 있고 40도 이상 체온이 올라가고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 더운 한낮에는 농작업을 피하고 자주 쉬어야 합니다. 물도 자주 마시고 챙이 넓은 모자와 토시를 착용하는 등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